



서초그랑자이

GS건설

사계절 담아낸 네가지 산책길서 '쉼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그랑자이'는 지난 6월 무지개아파트를 재건축해 총 9개동, 지하 4층~지상 35층, 1446가구 규모로 세워졌다.

GS건설에 따르면 서초그랑자이는 전체 동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저층 가구의 조망권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2.5배 크기의 공원인 '엘리시안 야드'를 조성해 소나무와 팽나무 등을 식재했다. 바닥분수와 미스트 로드, 티하우스와 스카이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G과교라, 진경산수원과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포시즌 캐널 등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 산책로 경계부에는 소형 스탠드를 마련했다.

단지 외곽에는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이팜 가든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테라피 가든을 만들었으며 이밖에 사계절의 자연을 고스란히 느끼며 단지를 거닐 수 있는 4가지 테마의 산책로가 조성됐다. 서초그랑자이는 국내 최초로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CGV 골드클래스 영화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2동 최상층인 35층에는 별도로 마련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큐브 카페'가 있어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강남의 화려한 도시 전경은 물론, 우면산과 양재 시민의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한 눈에 담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서초그랑자이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가까우며 인근에는 양재고등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있다. /정연우 기자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DL이앤씨

196년 '살구나무'... 품격이 '주렁주렁'

DL이앤씨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은 서울시가 보호수로 지정한 196년 된 살구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이 만들어졌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최장수 토종 살구나무다. 높이 13m, 둘레는 250cm에 이른다. 아파트가 세워질 당시 나무가 자리 잡은 주변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나무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졌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이 승인돼 현재는 단지를 대표하는 상징목이 됐다. 봄에는 분홍 꽃을 피우고 초여름에는 살구 열매를 맺으며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의 단지 조경을 빛내준다.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은 이 살구나무를 비롯해 소나무, 왕벚나무, 낙엽 대형목 등이 식재돼 단지 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는 평이다. 게다가 1만9500㎡ 규모의 백련산 근린공원과 이어져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사우나 시설과 게스트 하우스 등이 마련됐으며 자녀들을 위한 스테디룸, 독서실 등 학습공간과 영유아를 위한 키즈룸이 있다.

한편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 총 32개동 지하 3층~지상 23층, 2569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정연우 기자



보라매 SK뷰

SK에코플랜트

녹지공간 풍부... 춘하추동 빛나는 경관

SK에코플랜트 '보라매SK뷰'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신길5구역을 재개발해 1546가구 총 18동 규모로 세워졌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가 구분됐다.

보라매SK뷰 단지 내 정원에는 교목 35종, 관목 21종, 초화 61여종 등 단지의 40% 이상을 다양한 녹지로 꾸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봄에 만개하는 산수유를 비롯해 ▲대왕참나무(여름) ▲청단풍(가을) ▲소나무(겨울) 등이 고르게 심어져 계절별로 빛을 발하는 게 보라매SK뷰 조경의 특징이다.

보라매SK뷰는 바로 옆에 대방초등학교가 있어 서울에서 대표적인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불린다. 1단지에는 아이들이 직접 텃밭을 가꿀 수 있게 조성된 작은농장 체험공간인 '해피팜'이 있어 초품아 아파트 단지로서 이름값을 하고 있다. 단지 중심부에 있는 녹지공간 '인재의 숲'은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이다. 석가산과 생태연못으로 구성된 수경시설인 '비오토피아정원' 입구에는 제주팽나무가 심어졌으며 연못 주변에는 야외 휴게시설이 설치됐다. 길 건너 2단지에도 생태연못 '물소리 정원'과 함께 조경시설이 아담하게 조성됐다.

한편 보라매SK뷰는 여의대방로를 경계로 동작구와 접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까지 도보로 6분, 여의도까지 걸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뛰어난 직주근접을 자랑한다. /정연우 기자

